

이상의 시에 나타난 기호의 의미

- '烏瞰圖 詩第四號'를 중심으로 -

정 용 문*

차 례

1. 들어가면서
2. '烏瞰圖 詩第四號'의 기호와 이상의 부정적 태도
3. '烏瞰圖 詩第四號'에 나타난 기호의 의미
4. 마치면서

1. 들어가면서

이상의 시에 대한 논의는 문학 연구자만이 아니라, 철학자, 수학자, 정신의학자, 시각디자인 전공학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¹⁾ 이 연구자들은 각기 다른 다양한 연구 방법으로 이상의 시에 접근하고 있는데, 이 논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상의 시는 Private Symbol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난해하다는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대상의 시에 등장하는 띄어쓰기의 무시, 언어 유희, 수학 기호와 도형의 사용 등의 난해함은 독자에게 거리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자와의 거리감은 동시에 이상의 시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상의 시에 나타나는 기호의 의미를 살펴 보

* 제주중학교 교사

1) 권영민 편저, 《이상 문학 연구 60년》, (문학사상사, 1998)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자 한다. 작품은 '烏瞰圖²⁾ 詩第四號'를 중심으로, 이 시에 나타나는 질서 정연하면서도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수학 기호들은 어떻게 선택된 시어들이며, 그 선택된 기호들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烏瞰圖 詩第四號'의 기호와 이상의 부정적 태도

이상의 '烏瞰圖 詩第四號'에는 다음과 같이 질서 정연하면서도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수학 기호가 시어로 사용되고 있다.

詩第四號

患者의 容態에 關한 問題.

1	1	1	1	1	1	1	1	1	1	●
2	2	2	2	2	2	2	2	2	●	2
3	3	3	3	3	3	3	●	3	3	3
4	4	4	4	4	4	●	4	4	4	4
5	5	5	5	5	●	5	5	5	5	5
6	6	6	6	●	6	6	6	6	6	6
7	7	7	●	7	7	7	7	7	7	7
8	8	8	●	8	8	8	8	8	8	8
9	9	●	9	9	9	9	9	9	9	9
0	●	0	0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0	0	0

診斷 0-1

26-10-1931

以上 責任醫師 李 箱

이러한 숫자의 질서 정연한 배열과 수학 기호의 사용은 1920년대와 1930년대 전기의 시인들이 사용하던 주정적 언어와는 달리, 시어의 기능을 개혁하려는 이상의 실험 정신을 알 수 있게 한다. 여기에

2) '烏瞰圖'는 총 15편으로 이상의 연작시이다. 1934년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조선중앙일보》에 이태준의 소개로 연재되었다. 이 작품이 발표되자 난해시로 일대 물의를 일으켜 독자의 비난을 받고 중단 되었다.

이상의 수학적 지식³⁾이 보태어져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추상화된 기호형 시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이 시에 사용된 이성적이고 논리적 사고의 소산이 아니라면, 이와 같이 질서 정연하게 수학 기호가 배열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무의식⁴⁾을 반영하는 초현실주의 수법과 비교해 볼 때, 추상화된 기호형 시들이 이성적이고, 논리적 사고의 소산임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의식의 세계를 반영하는 초현실주의는 '순수한 심리 자동 현상'이며, '이성에 의해 작용되는 모든 통제가 없는 곳에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남성 명사 <초현실주의>라는 순수한 심리 자동현상으로서, 이에 의하여 말로나 혹은 글로, 사고의 참기능을 표현하려 하는 것이다. 이성에 의해 작용되는 모든 통제가 없는 곳에서, 그리고 모든 미학적 혹은 도덕적 통제 밖에서, 사고가 행사되는 것이다.(-「초현실주의 포고문」, 1924)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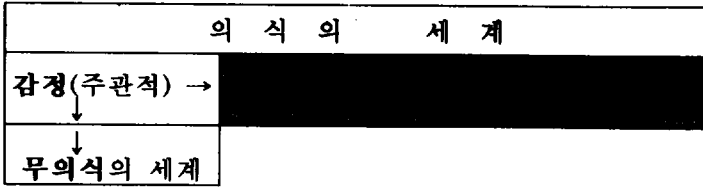
이처럼 무의식의 세계는 리비도(libido)를 바탕으로 하여, 이성적 통제를 제거한 자유 연상을 자동기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정신은 이성과 감정으로 이루어진 의식 세계에 대응되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고, 이들의 의미와 형상을 떠나서 순수 논리화시키는 추상화의 세계가 있다. 이성과 감정은 의식의 영역이며, 감정의 활동이 극단적으로 활발하면 무의식으로 넘어가고, 이성의 활동이 극단화

3) 건축학과 출신이며 총독부 재직시에는 독특한 계산법을 발견하여 동료를 놀라게 할 정도였다

4) 무의식의 세계를 반영하는 유형에는 '의식의 흐름(stream of consciousness)' 과 '내적독백(internal monologue)' 및 '자동기술(automatism)' 를 중시하는 초현실주의(surrealism)가 이에 해당한다.

5) C. W. E. Bigsby, 《DaDa and Surrealism》, 朴熙鎭 譯, 《다다와 超現實主義》, (서울대학교 出版部, 1979), p.53 재인용

되면 추상적 논리의 세계로 넘어간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기호적 상징(signal symbol)들은 추상화의 영역을 반영한 논리의 세계로 볼 수 있다. 즉, 추상화의 영역을 반영한 기호적 상징들은 이성적 상태에 더 가까운 것이 된다. 결국 '烏瞰圖 詩第四號'에 나타나는 수학 기호들은 이상의 이성적 사고에 의한 논리의 세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택된 시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수학 기호가 시어로 선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은 수학에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람은數字를버리라

-<線에 關한 覺書 1> 중에서

1234567890의疾患

-<線에 關한 覺書 6> 중에서

이와 같이 '숫자를 버리라', '疾患'과 같은 숫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곧 수학이 갖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면을 부정하는 이상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즉,

①능금한알이墜落하였다. ②地球는부서질정도만큼傷했다. ③이미如何한精神도發芽하지아니한다.

- <最後>(번호는 필자)

에서 보듯이, ①은 능금 한알이 떨어진 것에서 발견된 만유인력의

법칙을 인유하고 있으며, ②에서, 자연계는 합리주의의 법칙에 묶여 버리고 말았다. 따라서 시의 화자는 경험적 세계와 그 경험적 세계의 수학적 법칙, 곧 추상적 세계에 대한 반어적 태도이다. 경험적 세계의 추상화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거부하는 반어적 태도이다. 이렇게 합리주의적 자연법칙의 세계가 나타나면서 우리의 삶은 최후를 맞이했으며, ③과 같이 최후의 세계는 ‘發芽하지 아니한다’(절멸)는 사상은 과학적 세계에 대한 강한 부정을 의미한다.

또, ‘烏瞰圖 詩第四號’에서는 숫자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 숫자는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형상화 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합리주의가 지배하는 현실을 부정하는 이상의 태도에서 비롯된 의도적인 장치인 셈이다. 이 부정적 태도는 시인 자신의 반어적 태도이기도 하다.

이상의 반어적 태도는 이 시의 화자와 시인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이 시의 화자는 ‘責任醫師 李箱’이다. 시인 자신과 밀착되어 있다. 그러나 시의 화자가 곧 시인이 아니라 의사의 탈을 쓰고 있다. 이것은 수학적 기호의 세계가 표상하는 자아는 곧, 시인 자신에 대한 반어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烏瞰圖 詩第四號’의 수학 기호의 사용은 이상의 이성적 사고에 의한 논리의 세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택된 시어이며, 합리주의 세상에 대한 이상의 부정적 태도가 반영된 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선택되고, 이상의 부정적 태도가 반영된 ‘烏瞰圖 詩第四號’ 그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인지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3. ‘烏瞰圖 詩第四號’에 나타난 기호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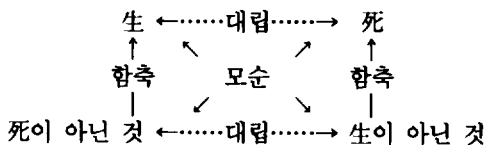
‘烏瞰圖 詩第四號’에는 나타나는 수학 기호의 사용은 이상이 의도

적으로 선택한 시어이며, 합리주의 세상에 대한 이상의 부정적 태도가 반영된 장치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 기호들의 의미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이 시의 문제는 '患者의 容態에 관한 問題'이다. '患者의 容態에 관한 問題'는 수학적 기호의 연결과, 수학적 기호를 뒤집어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여 '0·1'의 진단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수학적 기호의 세계는 소위 일상적 자아나 경험적 자아가 드러나지 않는 세계이다. 거기에는 의식하는 자아가 아니라 순수한 의식 자체만의 현상이 흐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순수한 의식이 흐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그레마스(Greimas)의 기호학적 정방형(semiotic square)에 이 시에 사용된 수학 기호들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구조에서 나타난 대립 체계는 0과 1, ·과·의 대립 체계이다. 여기서 '1'을 有(生), '0'을 無(死), '·'을 有(生)가 아닌 것과 無(死)가 아닌 것으로 가설해 보자. 즉 이 시의 순수한 의식을 有(生)와 無(死)의 의식 체계로 보자는 것이다. 그러면 이 시의 공간 체계는 생과 死, 그리고 生이 아닌 것과 死가 아닌 것의 대립 체계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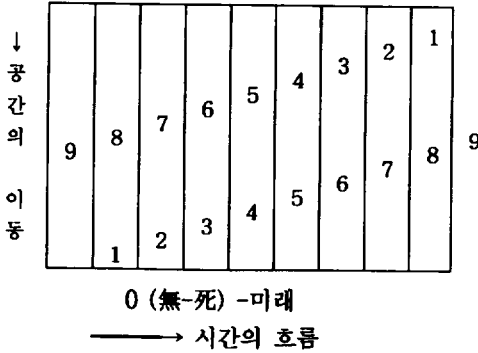
이 '患者의 容態'는 0과 1이라는 숫자의 배열상 순차적이면서 또한 이질적인 기호를 통하여 生과 死의 대립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生이 아닌 것과 死가 아닌 것이라는 生과 死의 대립 체계가 혼합되어 동일성(identity) 회복을 위하여 동일한 기호 '·'으로 상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대립적 체계의 중간에는 항상 그 대립적 공간의 분기점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生과 死의 공간적 성질을 모두 포용하고 있는 중간항(mediation)인 것이다. 이 중간항이란 양극단의 두 요소들을 중재, 또는 분절(articulation)하는 제 3의 매체이다. 이 시에서는 生이 아닌 것과 死가 아닌 것을 포함하는 기호 '·'이 화자의 대립체계를 연결해 주는 제 3의 공간인 셈이다. 따라서 이 시의 수화 기호의 구조는 '生 / 生이 아닌 것 · 死가 아닌 것 / 死', 시적 기호로는 '1 / · / 0'의 삼항구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시적 기호	1	·	0
공간/시간	현재	중간항	미래
의 미	生	生과 死	死

결국 '烏瞰圖 詩第四號'의 구조에 있어서, 숫자의 사용은 이상이 생각하는 生과 死의 순수한 의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선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生과 死의 순수한 의식을 질서 정연하게 숫자를 배열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生과 死의 대립체계에 시간적 공간을 부여하여 화자의 의식을 확대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모형이 가능하다.

1(有-生) - 현재



이 1과 0의 대칭에서 ‘·’을 중간항으로 설정하여 선을 이을 때, 1축의 無(死)가 많아질수록 (1 2 3 4 ... 7 8 9)0축의 有(生)가 적어지고 (9 8 7 ... 3 2 1)있는 숫자 배열의 질서를 발견할 수 있다. 즉 1(生)의 의식체계가 확대됨과 아울러 시간의 흐름을 숫자의 증가로 나타내어 화자의 자의식의 확산을 상징하기 위한 논리적 배열인 것일 수도 있다. 즉, 生이 시간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死가 다가오고 있다는 당연한 질서의 원리를 추상적 세계를 추구하는 이성의 힘을 빌어 ‘患者의 容態’로 기호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화자의 의식은 자의식이 없는 추상적 세계, 死(無)의 세계를 지향하는 의식구조를 가짐으로써 현실세계에 대한 소외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화자의 의식구조 및 지향성 역시 無가 많아지는 死의 세계로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시에서도 이러한 死로 지향되고 있는 이상의 의식세계를 보여 준다.

季節의順序도 끝남이로다. 算盤알의高低는旅費와一致하지아니한다.
罪를내어버리고싶다. 罪를내어던지고싶다.

이상의 시에 나타난 기호의 의미

- <囚人이만들은小庭園> 중에서

肺속 페인트칠한 十字架가 날이면날마다 발돋움을 한다.
肺속엔 料理師 天使가 있어서 때때로 소변을 본단 말이다.
나에 대해 달력의 숫자는 차츰차츰 줄어든다.

- <咯血의 아침> 중에서

이처럼 '季節의 順序도 끝남', '나에 대해 달력의 숫자는 차츰차츰 줄어든다'는 것은 곧 죽음의 세계를 의미하고 있다. 화자의 의식은 자의식 안에서 끝남의 세계, 死의 세계로 돌아가려는 것이다.⁶⁾ 결국 화자의 의식구조 및 화제의 초점이 死로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현실세계인 '1 2 3 4 5 6 7 8 9 0'을 자의식에서 관찰하면 이것은 거울 속에 비춰준 모습이 된다. 곧 화자는 내면의 위치에서 자의식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과 '0'을 이으면 0과 1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중간항으로 '.'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내면의 위치에서 자의식을 관찰하는 화자에게는 '(0·1) = (無·有) = (死·生)'이 있을 뿐이며, '責任 醫師 李箱'이 자신의 죽음에 이르는 병을 '診斷 0·1'로 밖에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은 '烏瞰圖 詩第四號'를 통해서 이상이 생각하는 生과 死의 순수한 의식을 기호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다.

4. 마치면서

이상을 요약하여 '烏瞰圖 詩第四號'에 나타난 기호의 의미를 결론 짓고자 한다.

6) 이상이 자살충동을 느꼈던 것들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1) '烏瞰圖 詩第四號'에서 숫자의 사용과 질서 정연하게 기호가 배열된 것은 이상의 이성적 사고에 의한 논리의 세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택된 기호이며, 합리주의 세상에 대한 이상의 부정적 태도가 반영된 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烏瞰圖 詩第四號'의 구조에 있어서, 숫자의 사용은 이상이 생각하는 生과 死의 순수한 의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선택되고 있는 것이다.

3) '烏瞰圖 詩第四號' '0 / · / 1'이라는 기호적 상징의 삼항구조를 지니며, 그 의미는 '無(死) / 有(生)가 아닌것 · 無(死)가 아닌 것 / 有(生)'로 상징된다고 할 수 있다.

4) 숫자의 배열의 증가는 자의식의 확대를 나타내고 있다.

5) 화자의 의식 구조 및 화제의 초점이 死의 세계로 지향되고 있다.

이상에서 이상의 '烏瞰圖 詩第四號'에 나타난 <기호형>들은, 무의식의 반영이라기 보다는 이성의 힘을 빌어 시어를 추상화하여 자신의 순수한 내면의식을 상징하는 기호적 언어로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생각들은 이 작품뿐만 아니라, 이상의 다른 작품들에서 함께 연구가 이루어질 때, 이상의 <기호형> 시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